

우연한 계기로 유튜브 코딩 강의를 접하면서 웹 퍼블리싱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코드 화면에서 의미 없게 느껴지던 영어와 기호의 조합들이 내가 의도한 새로운 모습으로 웹 브라우저에 나타나는 것이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강의에서 새로운 것을 배울수록 웹 페이지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더 늘어갔고, 또 그 퍼블리싱 결과물을 눈으로 바로 확인하면서 성취감을 맛보았습니다. 더 깊은 공부를 위해 약 5개월간 '반응형 웹 퍼블리셔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포토샵과 일러스트, HTML, CSS, jQuery 등 그래픽 프로그램과 퍼블리싱 언어를 익혔고, 웹 기획부터 포토샵 UI 디자인, 퍼블리싱 등을 직접 해보며, 웹 디자인과 웹 퍼블리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퍼블리싱 과정을 공부하면서 적성에 맞아서 그런지 빨리 배우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해결하려고 질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꺼이 배우는 자세로 문제 해결을 하는데 노력했습니다. 또한, 웹 퍼블리셔 과정을 수강하면서 웹사이트 제작 프로젝트를 클래스메이트와 하나의 팀으로 협업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건상 개발자와의 협업은 아니지만, 기획서와 UI 디자인, 퍼블리싱 결과물에 대한 문제점을 팀원들과 상의하고 수정 보완하면서 팀원들과의 협업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퍼블리싱에서 있어서 'HTML 구조'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콘텐츠를 어느 섹션에 포함할 것인지 등 전체 레이아웃부터 어떻게 부모 요소, 자식 요소 관계로 만들 것인가 클래스 네임은 어떻게 해야 일관성 있게 만들 수 있을까 등 상세한 구조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계획적이고 꼼꼼한 업무처리에 재능이 있는 저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퍼블리싱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퍼블리싱을 깊이 배워 나가면서, 퍼블리싱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면서 힘들 때도 많았지만,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는 스타일이라 짧은 기간이지만 실력이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좌절하지 않고 더 찾아보고 고민하면 될 거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노력하고 고민하면 대부분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공식적인 실무 경력은 없지만 실무에서도 더 고민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생산성을 낼 수 있는 직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협업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Fast Learner

#Willing to Learn

#Hard Worker

#나만의 장점

5개월간 '반응형 웹 퍼블리셔 과정' 수업 내내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충실한 퍼블리싱 기본기가 가장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의미 없는 빈 줄 만들지 않기, 파일명 폴더 명 클래스 네임 등 대소문자 혼용하지 않기, 주석처리 적절하게 잘하기, 들여쓰기(indent) 철저히 준수하기, HTML5 웹 표준과 웹 접근성을 준수하며 코딩하기, CSS 줄 코딩 하지 않기, CSS 선택자 순서 잘 지키기, 클래스 네임 가독성 좋게 만들기, head 안의 내용 잘 정리하기 등 처음에는 이렇게 까다롭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퍼블리싱 기본기가 왜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퍼블리싱 기본기를 지키는 것이 하면 좋고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불편해진 상태입니다. 다른 신입 퍼블리셔 지원자들의 소스 코드를 볼 때 퍼블리싱 기본기가 안 좋을 걸 보면서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웹 표준 코딩을 통해서 브라우저 종류 및 버전에 따른 기능 차이에 대하여 호환할 수 있도록 크로스브라우징까지 항상 염두에 두면서 퍼블리싱 작업을 했습니다.

체계적인 퍼블리싱 작업을 위해서는 HTML 와이어프레임 구조와 기능정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퍼블리싱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퍼블리싱 전에 UI 디자인을 기초로 HTML 와이어프레임을 준비합니다. 이유는 적절한 클래스 네임과 함께 HTML 구조를 상세하게 만들어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퍼블리싱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퍼블리싱 기능정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퍼블리싱 결과물의 상호작용, 호버이펙트 등 사용자와 인터랙티브한 요소를 미리 설정해두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퍼블리싱 작업 시 슬라이더, 라이트박스과 같은 기능성을 제외한 모든 작업은 하드 코딩을 원칙으로 퍼블리싱 했습니다. 탭 메뉴 콘텐츠, 어코디언 콘텐츠와 같은 상호 작용 콘텐츠 제작 시 순수 CSS로 작업하며, 레이아웃 작업에서 CSS 프레임워크의 그리드를 사용하지 않고 Media Query와 함께 기존방식 배치로 Position과 float를 활용해서 작업했습니다. 좀 더 반응형에 특화된 레이아웃이 필요할 경우 플렉스(Flex)와 그리드(Grid) 방식 역시 충실히 사용했습니다

#충실한 퍼블리싱 기본기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퍼블리싱

#와이어프레임 및 퍼블리싱 기능정의서 작성

#하드 코딩 원칙

#반응형

#웹표준

#크로스브라우징